

현안^과 과제

■ 연초 식탁물가 급등과 서민경제



 **현대경제연구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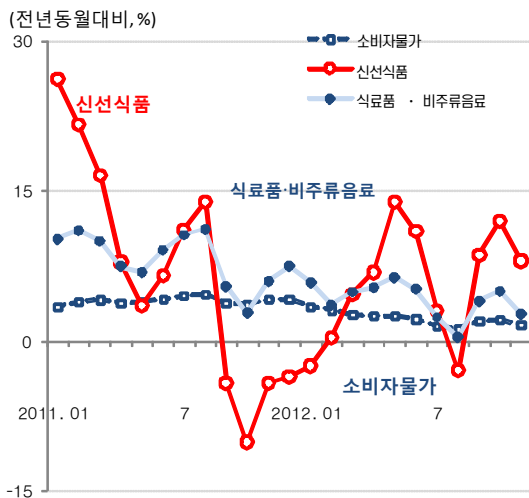
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, 연구자의 견해를 밝히며, 보고서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1. 식탁물가 급등

○ 최근 들어 한파 등의 영향으로 식탁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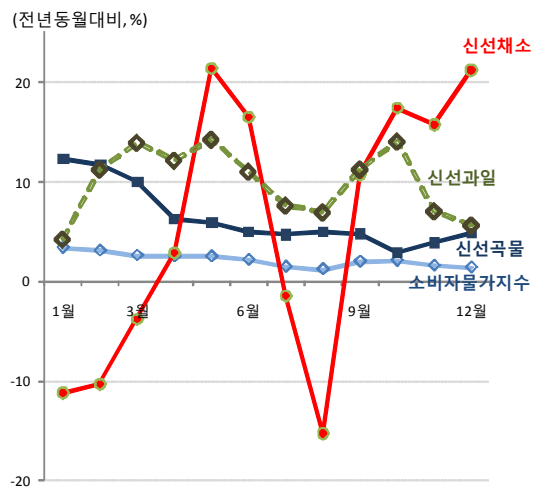
-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1.4%의 안정된 기초를 보이나, 서민식탁에 주로 사용되어 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신선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크게 상승하고 있음
- 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0월 2.1%, 11월 1.6%, 12월 1.4%로 매우 안정된 기초를 보이나, 신선식품 소비자물가는 10월 12.0%, 11월 8.0%, 12월 9.4%로 매우 크게 상승하고 있음
- 신선채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-15.3%에서 12월 21.2%로 크게 증가하였고, 신선과일과 신선곡물도 12월 각각 5.6%, 4.9%를 기록하며 소비자물가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
- 한파 및 강설과 일조량 부족에 따라 시설작물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이 증대되고, 농산물 출하작업 부진 등으로 공급물량이 감소하여 가격 급등
- 2012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.4%~3.4%로 최대 2.0%p의 등락폭을 보였지만, 식료품·비주류음료는 0.4%~6.4%로 최대 6.0%p의 등락폭을, 신선식품은 -2.9%~13.9%로 최대 15%p의 등락폭을 나타냄

<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

< 신선식품 분야별 물가상승률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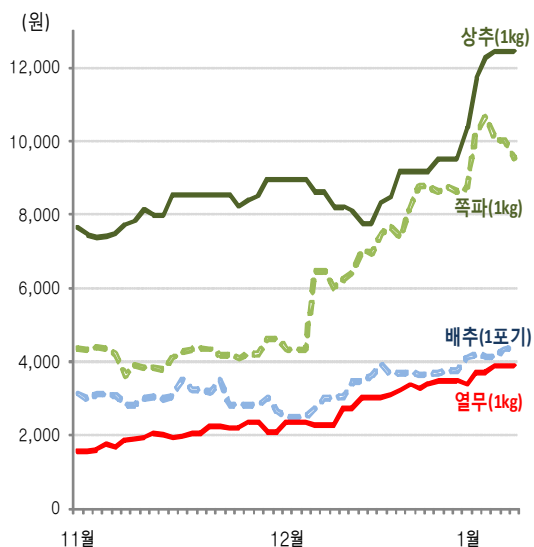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통계청

○ 특히 개별품목별로 보면, 서민식탁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농축산물의 소매가격이 급격히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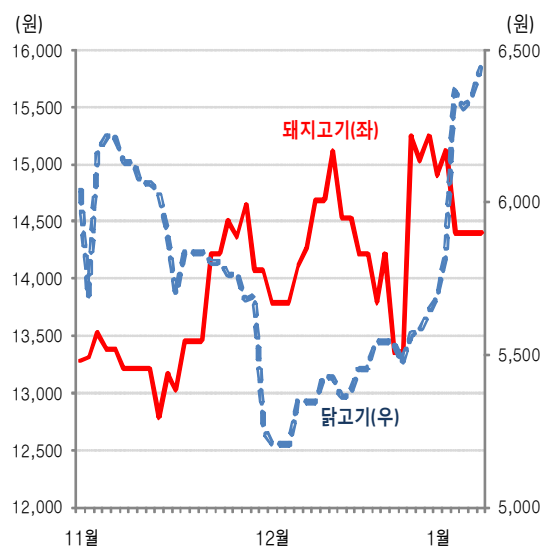
- **(농산물)** 서민식탁을 구성하는 배추, 상추, 열무 등의 가격이 12월 중순 이후 대폭 상승
 - 배추 1포기 가격은 12월 최소 2,494원에서 1월 중순 4,387원으로 약 한달 동안 75.9% 상승하였고, 상추(1kg 기준)는 12월 중순 7,750원에서 1월 중순 1만 2,417원으로 약 60.2% 상승
 - 쪽파(1kg 기준)와 열무(1kg 기준)도 각각 최대 60.2, 66.9% 상승하며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크게 상승
 - 한파 및 강설과 일조량 부족에 따른 생육 및 출하작업 부진으로 공급물량이 감소하고, 하우스 농가의 연료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최근 가격 급증
- **(축산물)** 서민식탁에 주로 활용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소매가격도 최근 12월 이후 크게 상승함
 -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소매가격은 12월에서 1월 중순까지 각각 최대 14.1%, 23.7% 상승
 - 이 역시 강한 한파가 지속되면서, 축산물 사료비 및 축산시설 온도 유지를 위한 사육비가 증가하여 축산물 가격 급증

< 주요 농산물 소매가 추이 >



자료 :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
< 주요 축산물 소매가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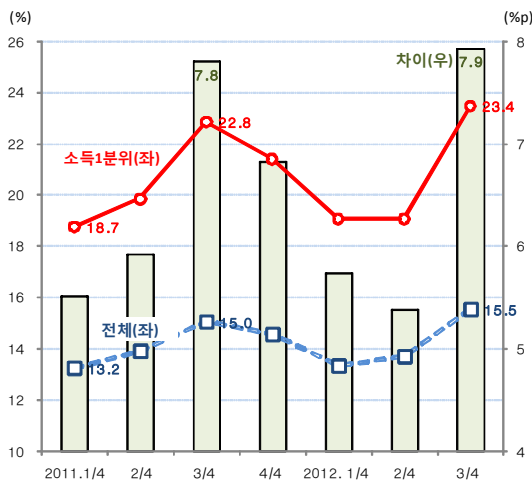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
2. 식탁물가와 서민경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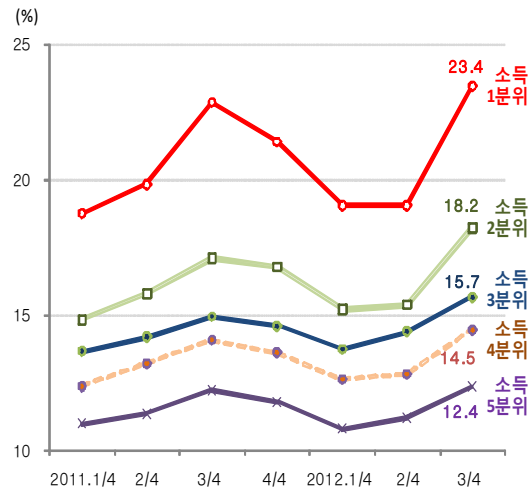
- 식탁물가 급등은 상대적으로 서민 가계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평가됨
 - 가계의 총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식료품 지출액 비중을 나타내는 엔겔계수를 분석하여 소득계층별 식탁물가 상승에 파급영향을 살펴봄
- 저소득 가구의 엔겔계수가 급등하고 있어, 식탁물가 상승이 저소득층 일수록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임
 - 소득 1분위 서민계층의 엔겔계수는 2012년 3/4분기 23.4%로 최고치를 달성
 - 서민층의 총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, 한파로 인해 농축산물의 가격이 증가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반증함
 - 전체가구 평균과 소득 1분위 가구의 엔겔계수 차이값도 2012년 3/4분기 7.9%p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달성하여 한파로 인한 식료품비 상승은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
 - 소득 1분위의 엔겔계수 증가폭이 가장 크고, 고소득층의 가구 일수록 증가폭이 낮게 나타, 향후 식탁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이 가중될 전망
 - 소득 5분위와 소득 1분위의 엔겔계수 차이도 2012년 3/4분기 11.1%p에서 2011년 1/4분기 7.7%p 보다 3.3%p 확대

< 엔겔계수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자료 이용, 현대경제연구원 산출

< 소득분위별 엔겔계수 추이 >



자료 : 통계청자료 이용, 현대경제연구원 산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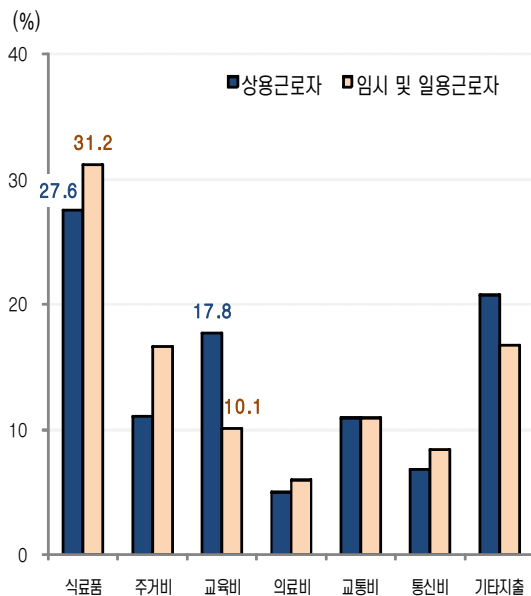
○ 고용형태별로 보면, 근로조건이 열악한 계층에게 식탁물가 급등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됨

-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로 보았을 때, 임금 및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)보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2)의 식료품 소비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남
- 2012년 상용근로자의 식료품 소비지출 비중이 27.6%이고,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31.2%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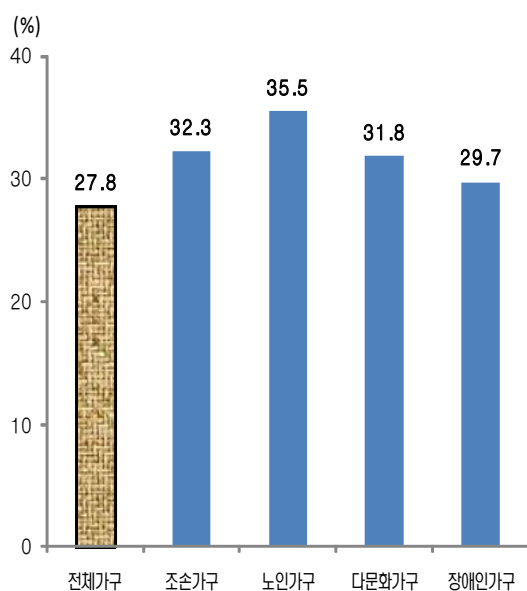
○ 노인가구, 조손가구 등의 취약계층의 경우 식료품 소비지출 비중이 전체 가구 보다 훨씬 높아, 식탁물가 상승에 크게 영향

- 취약계층의 식료품 소비지출비중이 전체가구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
- 노인가구는 총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5.5%로 가장 높고, 조손가구는 32.3%, 다문화가구는 31.8%, 장애인가구는 29.7%로 매우 높아 식탁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받음

< 2012년 고용형태별 소비지출 비중 >



< 가구형태별 식료품 소비지출 비중 >



자료 : 통계청자료 이용, 현대경제연구원 산출

주 : 본 자료는 통계청의 『가계금융·복지조사』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, 복지부문의 소비지출에 한정하고 자동차 구입비용 등을 제외하여 『가계동향조사』의 분류체계와 상이함

1) 상용근로자는 임금 근로자 중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을 가리킴

2) 임시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자를,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인 자를 가리킴

3. 정책적 시사점

- 식탁물가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, 신선식품의 계절적 요인에 따른 가격급등을 예방하기 위해 장·단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
 - (단기적 대책)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,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
 - 식탁물가 불안정에 따라 저소득층의 물가부담이 증가하고, 이는 실질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서민 가계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 우려
 - 최근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식탁물가가 급등하여,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
 - 동절기 한파가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및 식료품을 긴급 지급하고, 각계각층의 온정을 모으는 '한파 기부 문화'를 조성
 - (중장기적 대책) 신선식품 수급안정과 가격변동성 완화 장치 마련 필요
 - 한파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비축 시스템 보완
 - 수급 변동성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재고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공급불안 등으로 인한 신선식품 가격 변동성 완화
 - (근본적 대책) 농축산 생산시스템의 에너지효율화 기술 보급
 - 효율적인 온실시스템을 구축하고, 난방비 절감 효과가 큰 지열난방시스템 등을 확대·보급함으로써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농축산 생산시스템을 확충
 - 초기 거대 설비 자금에 대한 지원책 등을 강구 **HRI**

김광석 선임연구원 (02-2072-6215, gskim@hri.co.kr)